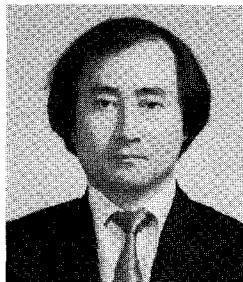


강제환우로 인한 작은 이익의 집착에서 벗어나자!



이 덕 선
(현대농장 대표)

현 재 채란업계 불황의 주원인이 강제환우로 인한 생산량증가 및 국내외적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급속한 소비감소가 주요원인으로 생각되며 지금의 강제환우는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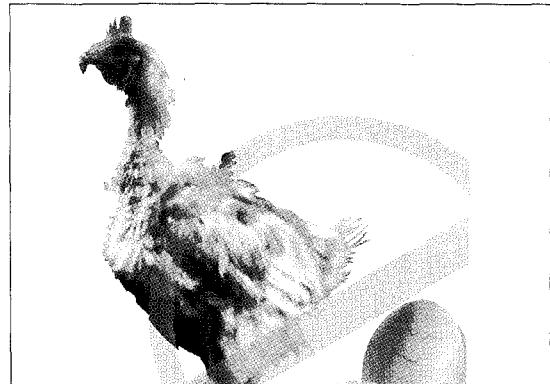
과거의 강제환우는 산란율 75%이하이거나 75주령 전후의 노계에서 실시하여 115주령 전후에 도태하였으나 최근의 강제환우는 주령에 관계없이 신계군에서도 최하의 난가가 형성된 시기나 또는 대사성 질병, 바이러스 질병발생후 질병극복 수단으로 강제환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금년 3월 기준 산란계 5,050만수 중 노계 보유량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협회 채란분과위원회 자료)에 비추어 병아리 생산량이 2002년 하반기부터 줄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강제환우 자체와 미환우계의 타농가유입이 어느 정도 근절되고 적절한 노계도태가 이루어진다면 난가상승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하지만 매번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신계입추가 어려운 채란농가들이 강제환우를 실시하고, 노계처리된 미환우계가 타 농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강제환우로 인한 생산가답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곧 난가상승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책과 회한의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채란농가의 아픈 현실이다.

물론 강제환우는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루어지지만 늘 무너지는 기대속에서 경영의 압박만 가중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2만수를 강제환우하였을 때 드는 비용이 수당 1,000원만 잡아도 2,000만원인데, 환우한 닭은 2,000만원을 벌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질병 등으로 4~5개월도 못 버티고 도태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농장수익에 오히려 손해만을 입하게 되고 또한 강제환우중 폐사되는 1~3% 폐사계들이 근처 개농장 등으로 유출되어 질병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실례로 경기도 이천에서 4만수를 사육하고 있는 D농장은 바로 옆에 세입자로 있는 1,200수 규모의 농장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본 예를 들 수 있다. 세입 농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수년동안 미환우계를 받아 강제환우로 생산되는 계란만을 출하하여 운영해왔지만 매번 들어오는 미환우계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재는 파산직전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천지역 K농장은 22,000수를 기르고 있는데 3~4년 동안 가금티푸스(SG), 뉴캣슬병(ND), 가금인플루엔자(AI) 등으로 심한 피해를 보게되어 농장경영이 어렵게 되자 미환우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본인이 우연히 알게되어 J사장에게 만일 미환우계를 받으면 농장이 망하게 되니 어떻게든지 신계를 입추해서 질병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고 확신을 주면서 간곡히 권유한 적이 있다. J씨는 필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추농장으로부터 신계를 입추하고 양계전문 수의사에게 질병관리를 의뢰하면서 근 1년이 넘게 농장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어느정도 경영에 숨통이 트이는 좋은 예를 볼 수 있었다.



가끔 J사장을 만나면 그때 미환우계를 받지 않고 신계를 입추한 것이 얼마나 잘 한일이었는지 모른다고 계면쩍게 웃곤 한다.

위 실례를 보더라도 불황일수록 신계를 입추해서 질병을 극복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높은 산란율을 지속시킬 때 농장경영에 이익이 됨은 물론 난가상승시 농장수익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계란은 생산만 하면 판매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날로 변화되는 소비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아남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환우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계란의 포장단위도 30개판란은 점점 없어지고 소단위로 포장되어 생산자 농장, 주소 등이 명기되어야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며 품질이 나쁜 계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게되는 시대가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앞으로 과거와 같은 강제환우로 인한 작은 이익에 집착을 버리고 과감히 노계를 도태하여 적정수수의 산란수수를 유지하고 가격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채란인 모두 책임있는 노력과 아울러 슬기로운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본다. **양계**